

# 03

환경 디자인  
Environmental Design

# 어서오시계

“예지동 시계골목으로 어서 오시게나!”

편리함을 우선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지만 하던 우리가 모퉁이 너머를 알 수 없는 구비진 골목을 따라건고  
소소하고 정감 있는 가게를 발견하면서 기쁨을 느끼며, 그 곳에서 여유와 새로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적 감성에 공감하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골목에서 한나절 여유와 따듯함을 찾길 바랍니다.



권준태  
juntae1993@gmail.com

원유진  
osy99035@gmail.com

김형승  
brovic94@gmail.com



사회구성원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개인의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기여하고 사회에 순기능을 가져오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미관의 아름다움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탄생했다.

거리는 공공장소로서, 도시와 지역사회의 공공생활에서 통행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장으로 발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낡고 오래된 거리,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거리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거리를 쾌적하고, 즐겁고, 아름답게하며 무엇보다 이용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 지속가능한 디자인

지구환경 문제를 생각해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을 모색하는 것

### 도시재생

상징적이고 특징있는 요소를 더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특화가로산업

### 거리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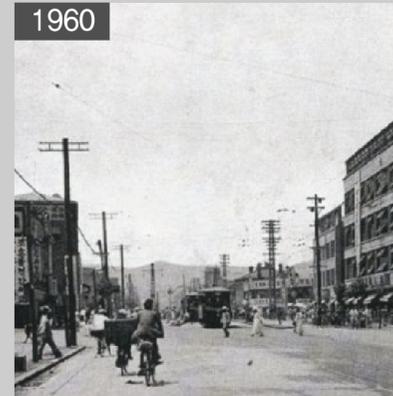
도시에서 도로, 도로변의 건물, 가로수와 공공 시설물등 가로의 구성 요소들이 어울려 이루어 내는 종합적 이미지

# 예지동 시계골목

예지 금,은 시계도매상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시계 골목은 200여 미터 남짓한 거리에 시계와 관련된 각종 점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거리에 진열된 오래된 시계들과 색이 바랜 간판들이 거리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서울 도시 한복판이지만 시간이 멈춘듯, 70년대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청계천변 상인들이 하나 둘 이주하며 중고시계 판매와 수리상을 했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형성되기 시작되었다.



혼수 준비를 할 때 꼭 들러야 하는 곳으로 자리잡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삐삐와 핸드폰의 등장으로 시계는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갔고 골목의 침체기도 시작되었다.



서울시가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온 재개발 계획이 중단되면서 상권이 흩어지게 되었고, 상인들은 이리저리도 저리저리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이곳에 남은 이들은 국내 시계수리 산업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제2의 전성기를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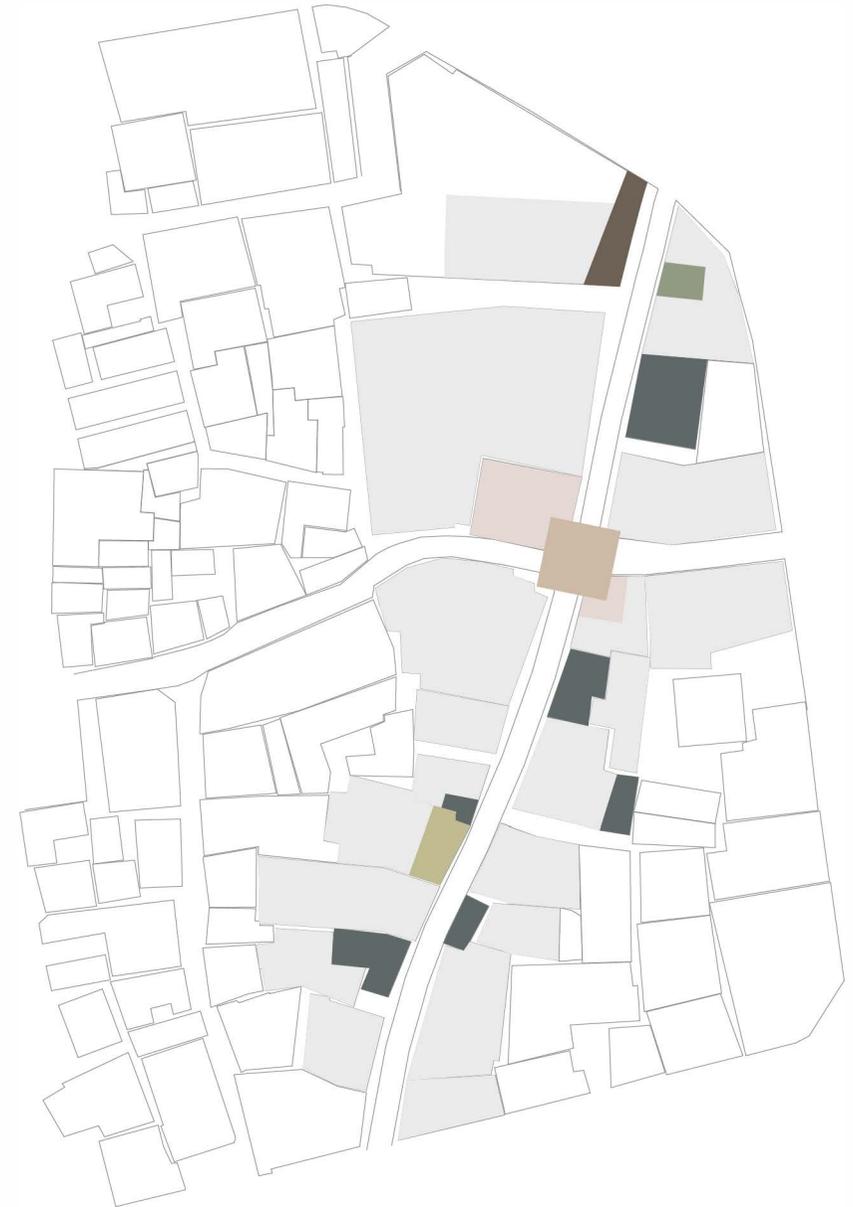
거리의 전성기인 1970년대를 고스란이 담고있는 예지동 시계골목은  
어르신들에겐 익숙한 향수의 공간이지만 청년들에겐 단지 낯설고 낙후된  
공간이다. 익숙함과 새로운 변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여 모두가 연결될  
수 있는 거리계획이다.

## Design motive



# Zoning Plan

생기있는 골목을 만들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 젊은이들의 유입을 위해 그들에게 익숙한 요소인 카페와 음식점을 구역마다 배치시키고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좀 더 시계라는 콘텐츠와 친근해지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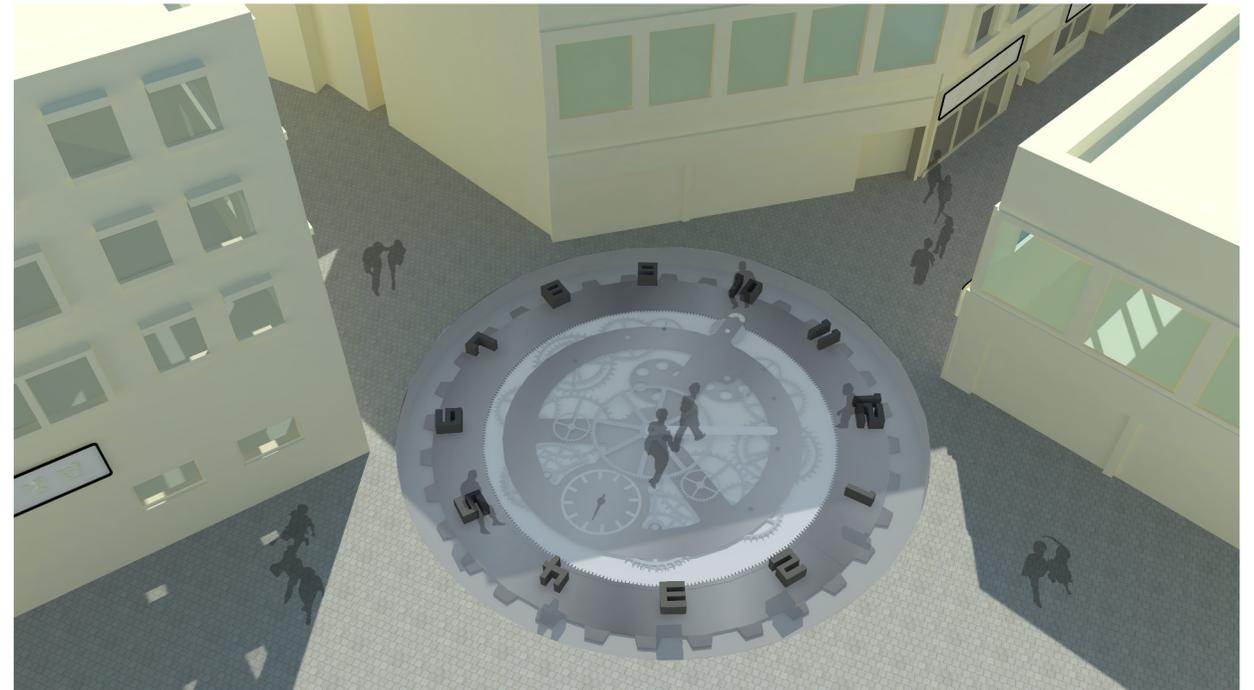


- |        |      |         |         |
|--------|------|---------|---------|
| 시계 수리점 | 광장   | 공방, 갤러리 | 인포메이션   |
| 박물관    | 옥상정원 | 플리마켓    | 카페, 음식점 |



**“두꺼비 다방”**

두꺼비 다방은 유일하게 골목을 지키고 있는 커피숍으로 오래된 건물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하여 운영



**“시계광장”**

골목의 중심부에 위치한 랜드마크적 요소로 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휴식의 공간



**“옥상정원”**

옥상에 위치한 녹지 공간으로 도시에 생명력을 부여



**“야간조명”**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로 사람들의 동선을 따라 빛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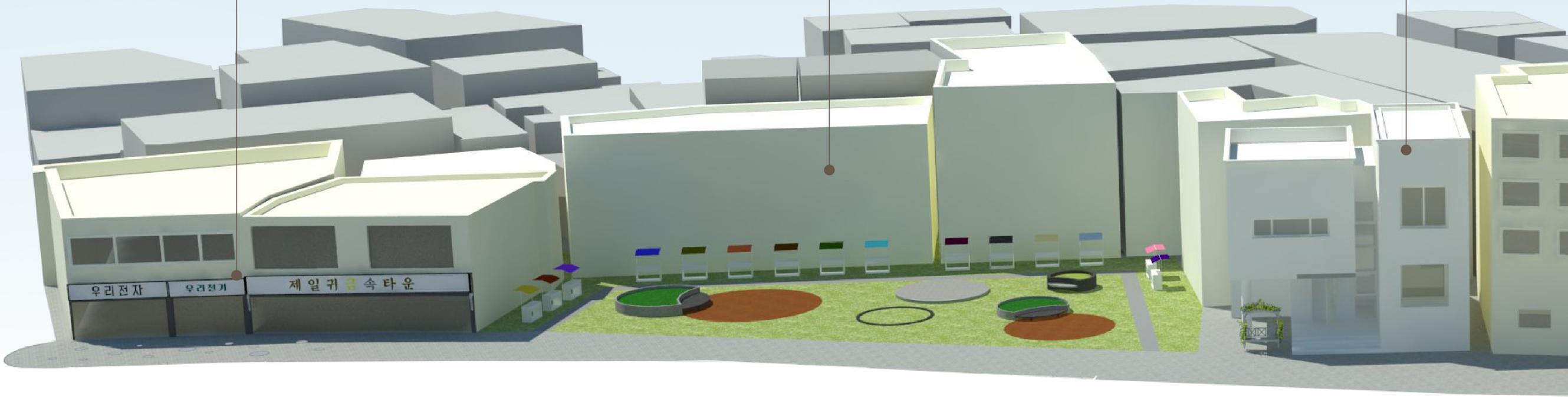
### 간판

현대적인 간판 바탕안에 고전적인 글씨체가 들어감으로써 생동감, 비례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플리마켓

지정된 날짜에 DIY 시계 체험, 물품 판매, 길거리 공연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터 형태의 플리마켓



## 카페 공방

카페 이외에도 공방 역할을 하는 두꺼비 다방. 시계를 이용한 정크아트 작품들 제작



## 시계광장

골목의 중앙 바닥에 다양한 종류의 시계 부품들이 랜드마크적 요소이며 숫자는 벤치로 휴식공간의 기능으로서 배치



## INFORMATION

오픈형 안내소로 방문객들이 입구에서 골목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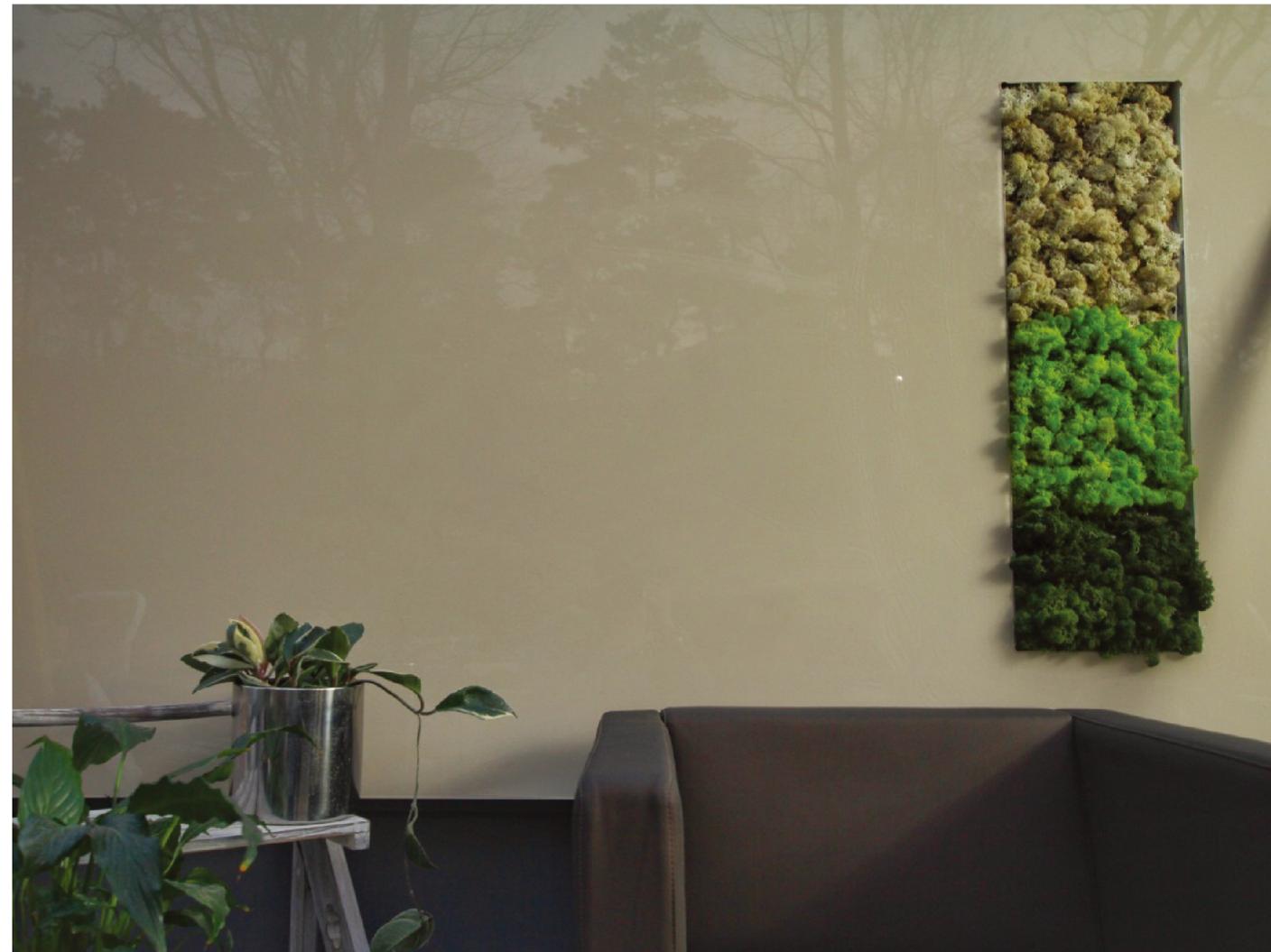
### 03. 환경디자인

## ALEGRO

“A Lasting Eco Green Remodeled Office”

당신의 하루는 어떠한가?

당신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단조롭고 지루한 오피스 공간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ALEGRO**는 앞서말한 당신의 반복되는 일상에 지속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제는 **편리하고 경쾌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오피스에서 당신의 새로운 하루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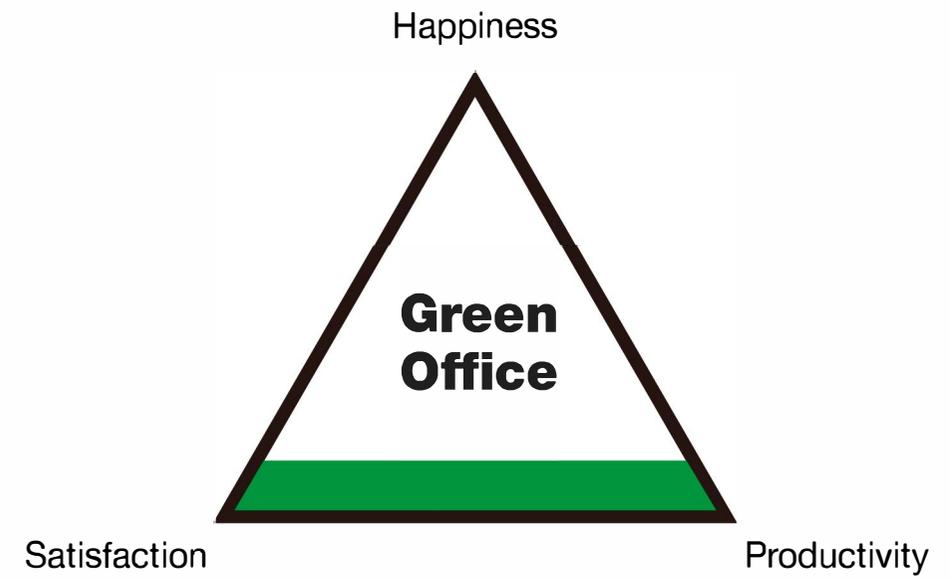
김경은  
sunhee089278@naver.com

김지수  
jsukim96@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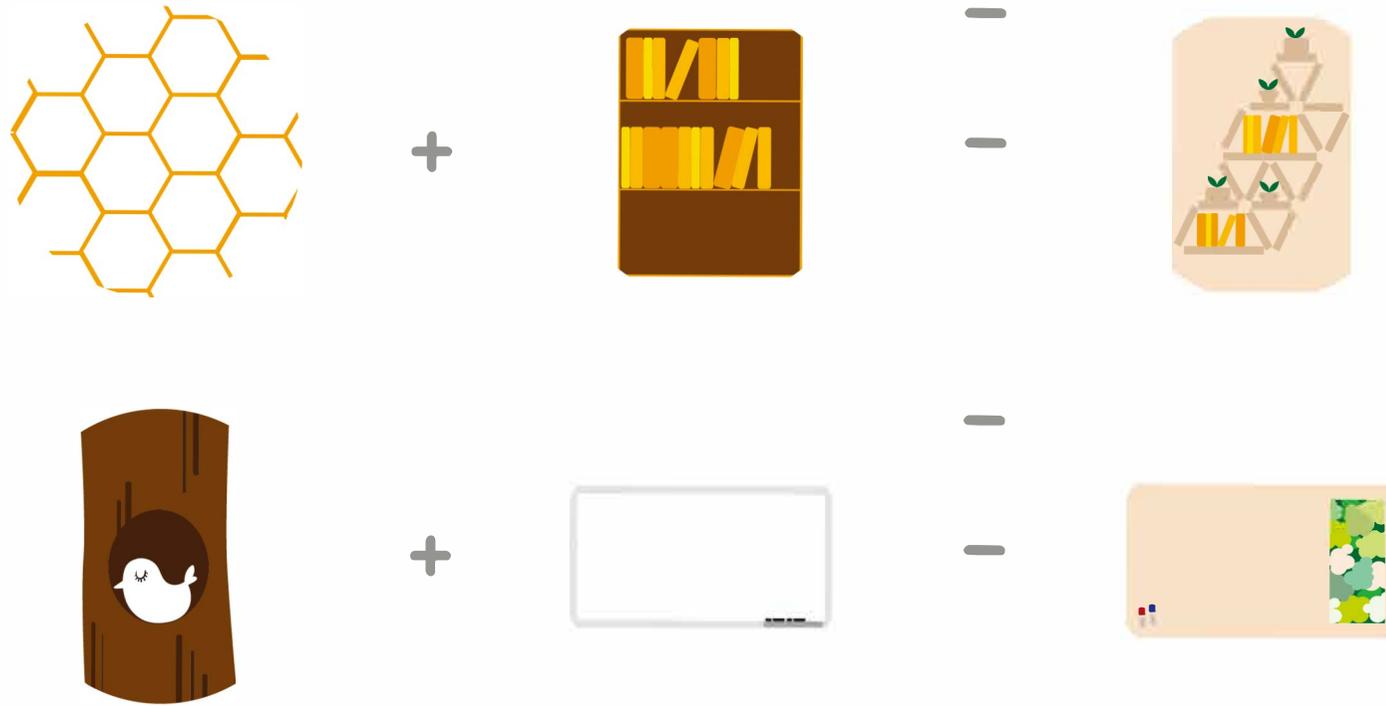
# prologue



식물이 자라나는 사무실은  
작업자의 행복감과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공간 만족도와 삶의 질 또한 높여준다.



# Design process



기존의 오피스에서 볼 수 있는 제품에  
환경적인 요소를 더해 작품의 모티브를 얻었다.



**Design outcome**

스칸디나비아 모스를 이용하여  
관리가 필요없는 **화이트보드**





조명에 따라 달라지는 분위기

### 03. 공간디자인

## Noise : 소음, 잡음

“ 지직- 지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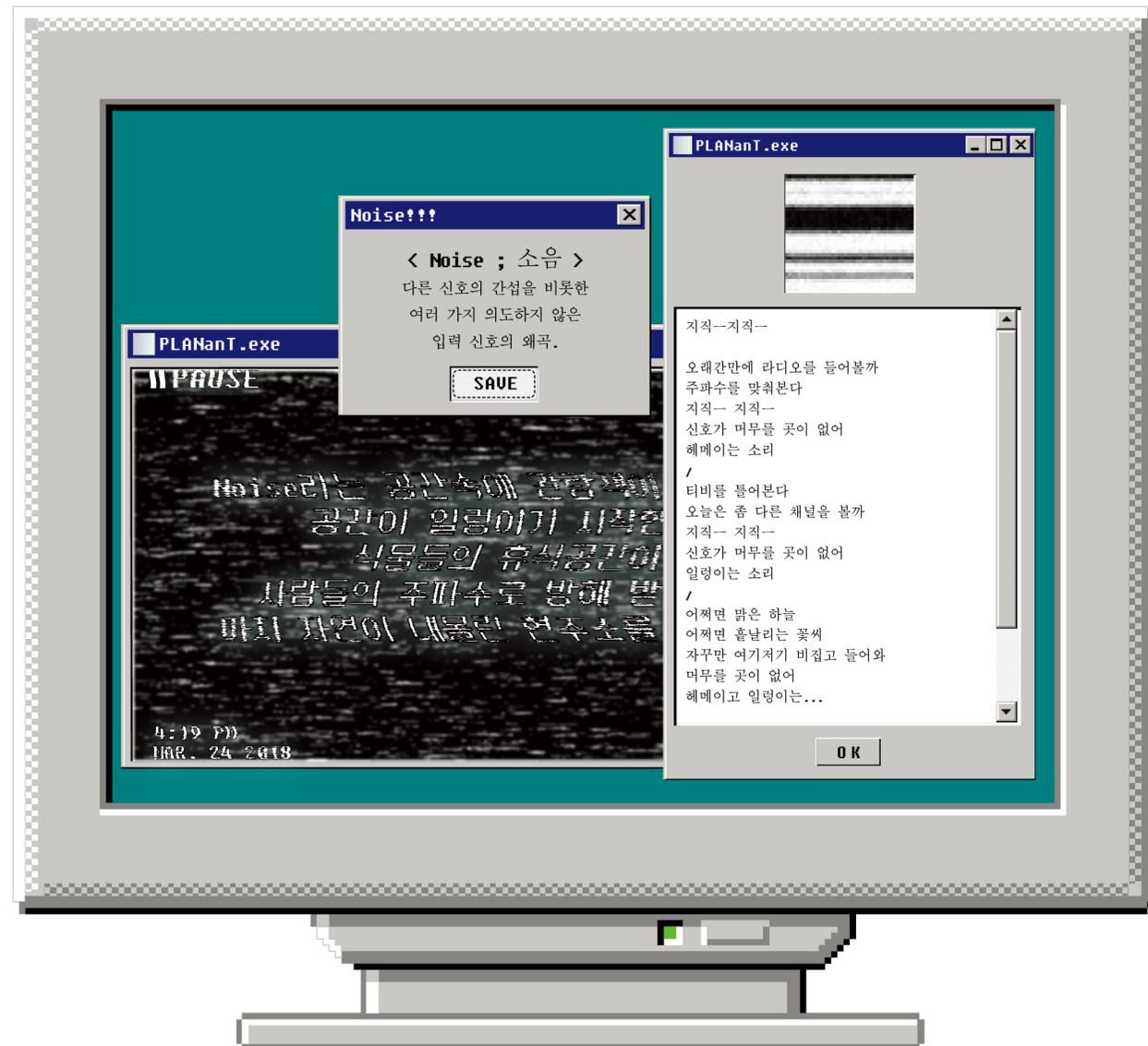
식물들의 휴식공간에 사람들이 발을 딛는 순간  
공간을 일렁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조용히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Noise 라는 공간에 들어서면 우리들의 주파수로  
공간이 흔들리고 식물들은 괴로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속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식물들이 차지하던 공간을 사람들의 욕심으로  
식물들이 있어야할 공간을 밀어버리고 설자리가 없어짐을  
노이즈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고,  
그 속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편의, 오락을 위해  
자연은 고려하지 않고 즐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이 작품의 완성이며  
작품이 하는 말입니다.

‘자연을 몰아 넣지 마세요. 쉴 수 있게해주세요’



Noise ; 소음 잡음

PLANant.exe



개요

#식물 #초록초록해 🌿 #그리너리 🌿  
 식물들 속에서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를 달고...  
 일상 속 식물들에 의해 즐기고 있을때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날이 높아져가는 식물에 대한 관심에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욕심으로 개발로 자연을 오염시켜왔다.  
 그결과 식물의 터전을 빼앗아 설자리가 없어졌다.

이모습은 마치 노이즈 같다  
 tv를 돌릴때, 라디오를 들었을때 이따금 들리는 소리  
 이 소리는 신호가 어디로 가야 할 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향하며 생기는 소음이다.  
 어디를 가야 할지 설자리가 없는 식물들에겐 우리가 소음일지도...

OK

communication expression of space

About Art Field

???????

- Media Art
  - Interactive art
  - Projection mapping

???????

**Interactive art**  
 미디어아트의 일종으로  
 관람객과 상호작용 하는 예술  
 관람객이 스스로 작품에 개입하고 만드는 것으로  
 관람객이 참여하여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예술이다.

**Projection mapping**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Concept

Retro-

‘Retrospect’의 준말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체제, 전통 등을 그리워하여  
 그것을 본뜨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식물들은 옛날로 돌아가고싶다.**  
**사람들이 터전을 빼앗기 전. 바로 그 옛날로.**

PLANant.exe

/안녕...  
 /미안하지만...  
 /좀 나가주세요...?  
 /시끄럽다...  
 /조용히 있고싶어...

PLANant.exe

/안녕...  
 /미안하지만...  
 /좀 나가주세요...?  
 /시끄럽다...  
 /조용히 있고싶어...

Noise ; 소음 잡음

PLANanT.exe

concept | **planting** | Settings



**극락조화**

극락조화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다.  
당시 유럽에서는 극락조의 아름다운 깃털이  
관상용으로 머리카락이나 모자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고  
유럽인들과 침략자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포획되었다.

외지인들의 침략에 원주민들이 죽고 극락조가 멸종이 임박할 즈음  
극락조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을 감행하자  
이를 막기위해 침략자들은 망망대해 운반석에서 다리를 잘라 버렸다고한다.

하지만 극락조는 두 다리가 잘려 땅을 딛지 못하는 슬픈 운명과 함께  
아름답게 날아올라 고향으로 갔지만 결국 땅을 딛지 못하였고  
극락조는 죽어서야만이 땅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다리없는 새, 천국의 새가 되었고

극락조가 떨어져 죽은 자리에는 극락조화가 피었다는 비극적인 전설이다.

OK

**Introduce!**

< PLANanT >

PLANT : 식물 / Planant : 몽환적인  
식물과 빛의 몽환적인 만남.

SAVE



흘러내리는 화분

식물이 흘리는 눈물을 화분으로 표현하였다.

PLANanT.exe

쉬고 싶은 식물

하루 일과가 끝이 난 후 조용한 거실에서  
쇼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우리 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식물

Worrying!

본 작품설명은 작가의  
작품감상의 방향을 제시할 뿐  
감상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 가능



# II PAUSE

Noise라는 공간속에 관람객이 들어서며  
공간이 일렁이기 시작한다.  
식물들의 휴식공간이  
사람들의 주파수로 방해 받는다.  
마치 자연이 내몰린 현주소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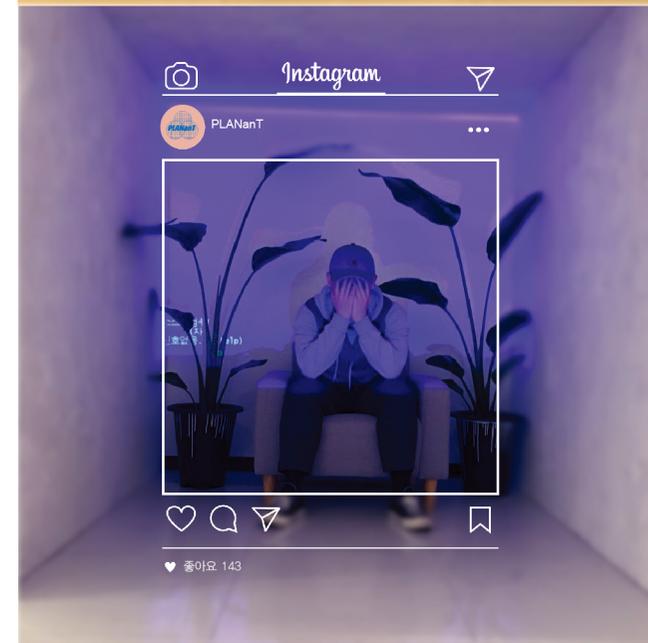
4:19 PM

MAR. 24 2018



공간 ; noise

쉬고싶은 식물과 울고있는 식물



Interactive art  
 식물들의 공간에 들어와 소리를 내고  
 그 공간에 노이즈가 생긴다.  
 이것이 작품의 완성이다.  
 노이즈라는 공간 속에서  
 식물들은 괴로워하고  
 우리는 즐기는 모습,  
 이는 인간의 오락을 위하여  
 자연을 내몰아내는 모습을 말한다.



noise 발생



